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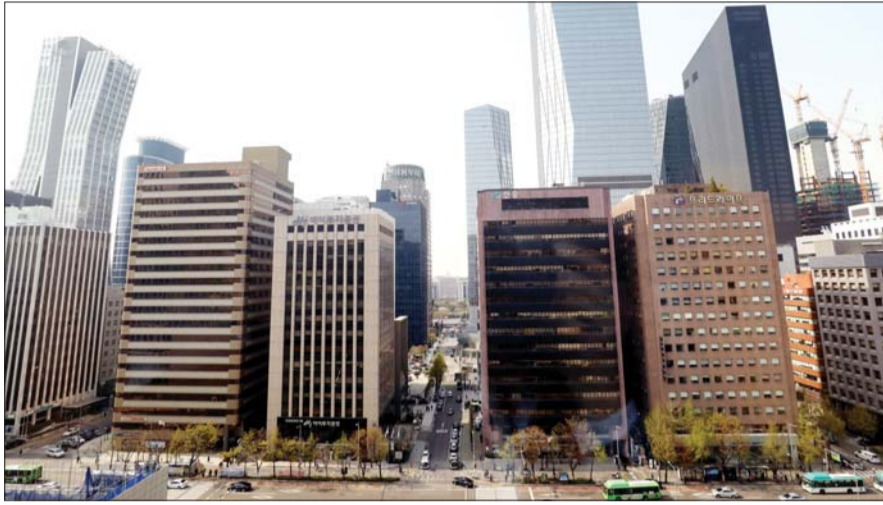
# 증권사, 호실적에도 주가 급락... 저평가 구간 vs 변동성 취약

증시 활황에 1분기 최대실적 행진 코스피 방향성에 따라 주가 영향 레버리지 상품 등 거래 확대 전망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조정을 두고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이라는 평가와 "증시 변동성에 가장 취약한 업종"이라는 경계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미래에셋·한국·키움·NH·삼성·KB·신한·메리츠·대신·하나증권)의 1분기 합산 순이익은 4조33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1조19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업계 최초로 분기 순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 한국투자증권은 7847억원, 키움증권은 4774억원, NH투자증권은 4757억원, 삼성증권은 4509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나란히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냈다.



서울 여의도 증권사.

/뉴시스

'뿔천피(코스피 8000 포인트)'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동반한 증시 활황이 실적을 이끌었다. 코스피 상승으로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었고,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36조원에 육박하면서 이자수익도 증가했다. 5월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52조원을 넘어 1분기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 2분기에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주가는 실적과 반대로 움직였다. 코스피가 장중 8000선을 돌파한 직후 급락하면서 KRX 증권업종지수는 지난 6일 고점 대비 약 18% 하락을 기록했다.

증권주는 대표적인 고베타 업종(High-Beta)으로 꼽힌다. 거래대금 증가와 증시 호황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는 차익실현 매물도 가장 먼저 쏟아진다. 실적이 좋아도 코스

피 방향성에 따라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최근에는 증권사들의 이익구조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변동성을 일부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는 위탁매매 수수료 의존도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자산관리(WM), 투자은행(IB), 세일즈 앤드 트레이딩(S&T),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다.

해외 사업 역시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6개 증권사는 15개국에서 93개의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현지법인의 지난해 순이익은 6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67.8% 증가했다.

시장환경도 우호적이다. 고객예탁금은 지난 12월 기준 137조417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풍부한 대기 자금을 보여줬다.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 도입도 국내 증시 접근성을 높여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증권은 미국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와 손잡고 '외국

인통합계좌' 서비스를 제공해 해외 투자자가 국내 계좌 없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고, 미래에셋·NH·KB·신한투자증권 등도 관련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증권가는 이 같은 구조 변화가 향후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태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증권업종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하며 거래대금 증가와 신용공여 확대가 수수료 이익과 이자이익을 동시에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오는 27일 출시)와 국민성장펀드 등 신규 투자 상품이 잇따라 도입될 예정이어서 거래대금 확대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주가오르고 거래가 늘어날수록 증권사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본다"며 "주식 중개 수수료뿐 아니라 자체 운용 수익도 함께 증가할 수 있어 증권주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 최초 운용자산 600조 돌파

박현주 회장 글로벌 투자전략 결실 ETF 중심으로 연금 등 사업 확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국내 자산운용사 가운데 처음으로 총 운용자산(AUM) 600조원을 돌파했다.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연금,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부동산, 디지털 자산관리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며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20여 년간 추진해 온 글로벌 투자 전략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총 운용자산은 624조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250조원이던 운용자산은 2024년 300조원, 2025년 5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1년 만에 100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런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은 ETF 사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홍콩, 일본 등 13개 시장에서 747개 ETF를 운용하며 글로벌 ETF 시장 12위에 올라 있다. 국내

에서는 TIGER ETF가 개인과 연금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며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특히 TIGER 반도체 TOP10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투자 수요에 힘입어 순자산이 연초 2조원에서 4월 말 10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내 주식형 테마 ETF 1위, 전체 ETF 순자산 3위에 오른 대표 상품이다.

오는 27일 상장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서는

총보수를 연 0.0901%로 책정해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제시했다. 상품 경쟁력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앞세워 ETF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ETF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은 연금과 공공 자금 운용으로 확장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최초로 타깃데이트 펀드(TDF)를 도입한 이후 연금 펀드 설정액과 TDF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를 출시하며 연금 투자 고도화에도 나섰다.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와 주택도시기금운용을 맡고 있으며, 올해 주택도시기금전담운용기관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여수 경도에 JW메리어트를 유지하고 국내 코어 부동산 블라인드 펀드에서도 대규모 자금을 확보했다.

이 같은 외형 성장은 박현주 회장이 일찍부터 강조해 온 '국경 없는 투자' 철학과 글로벌 확장 전략 위에서 가능했다는 평가다. 박 회장은 올해 미래에

셋자산운용 배당금 16억원 전액을 기부하며 2010년 이후 16년 연속 기부를 이어갔다. 누적 기부액은 347억원에 달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으로 인공지능(AI)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투자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의 인공지능 법인 웰스팹과 호주의 로보어드바이저 스타스팹 등 글로벌 계열사와 협업해 투자 전략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ETF 사업도 확대하며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차별화된 투자 솔루션으로 혁신 성장을 이어가고, 국내에서는 TIGER ETF를 중심으로 투자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며 "AI를 핵심 성장 엔진으로 삼아 더 정교한 투자 솔루션으로 혁신을 이끌며 글로벌 선도 자산운용사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공인회계사 AI 활용 사례 공유 간담회'에서 참석 공인회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 한공회 공인회계사 AI 역량 강화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한공회)는 지난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공인회계사 AI 활용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인회계사 업무에 AI 활용 경험과 관심이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 회원들이 실무현장에서 활용 중인 AI 도구와 업무 적용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이고, 회원 간 AI 활용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회계사들은 "생성형 AI를 단순 검색 도구가 아닌 업무 특성에 맞춰 병행 활용하고 있다"며 "보고서 작성과 리뷰, 클라우드 코드(Claude Code)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공회는 최근 전국 49개 지역공인회계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KI CPA 개업 및 직무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여 AI 활용 교육과 사례 공유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KICPA AI 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각자의 AI 활용 경험과 실무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역공인회계사회를 대상으로 AI 활용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회원 간 AI 활용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하고, 전파 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 K-증권사, 해외법인 실적 대폭 개선... 지난해 당기순익 4.5억弗

해외법인 순이익 2년 연속 증가세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현지법인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6개 증권사가 운영하는 83개 해외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은 4억5580만달러(약 6540억원)로 집계됐다. 전년 2억7170만달러(약 3898억원)보다 67.8% 증가한 규모다. 이는 16개 증권사 전체 당기순이익의 8.7%에 해당한다.

증권사 해외법인 순이익은 2023년 1억650만달러에서 2024년 2억7170만달러, 지

난해 4억5580만달러로 2년 연속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다.

실적은 미국·홍콩·베트남 법인이 주도했다. 국내 증권사가 진출한 15개국 가운데 미국, 홍콩, 베트남 등 13개국에서 총 4억6580만달러의 이익을 냈다. 반면 중국과 일본에서는 총 100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전체 83개 현지법인 가운데 51개(61.4%)는 흑자를 냈고 32개(38.6%)는 적자를 기록했다.

해외 사업 외형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 현지법인 자산총계는 357억4000만달러(약 51조3000억원)

로 전년 말보다 4.3% 증가했다. 이는 조사 대상 증권사 전체 자산(714조8000억원)의 7.2% 수준이다.

자기자본은 당기순이익 증가와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87억7000만달러(약 12조6000억원)로 7.8% 늘었다. 전체 증권사 자기자본(72조7000억원)의 17.3%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 기준 16개 증권사는 15개국에서 총 93개의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영업활동을 하는 현지법인이 83개, 시장조사 목적의 사무소가 10개다.

지역별로는 홍콩·중국·싱가포르 등 아

시아지역이 66개로 전체의 71.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미국은 18개, 영국은 7개, 그리스와 브라질은 각각 1개였다. 최근 인도 진출이 확대되면서 기존 동남아 중심의 해외 전략이 미국과 인도 등으로 다변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미국 4개, 홍콩 3개, 인도 2개 등을 포함해 총 14개 해외점포가 신설됐고 중국 사무소 1개가 폐쇄돼 전체적으로 13개 점포가 순증했다.

증권사별로는 미래에셋증권이 현지법인 26개와 사무소 3개를 포함해 총 29개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 11개, NH투자증권 8개, KB증권 7개 순이었다.

/허정윤 기자